

建築士 10 年을 回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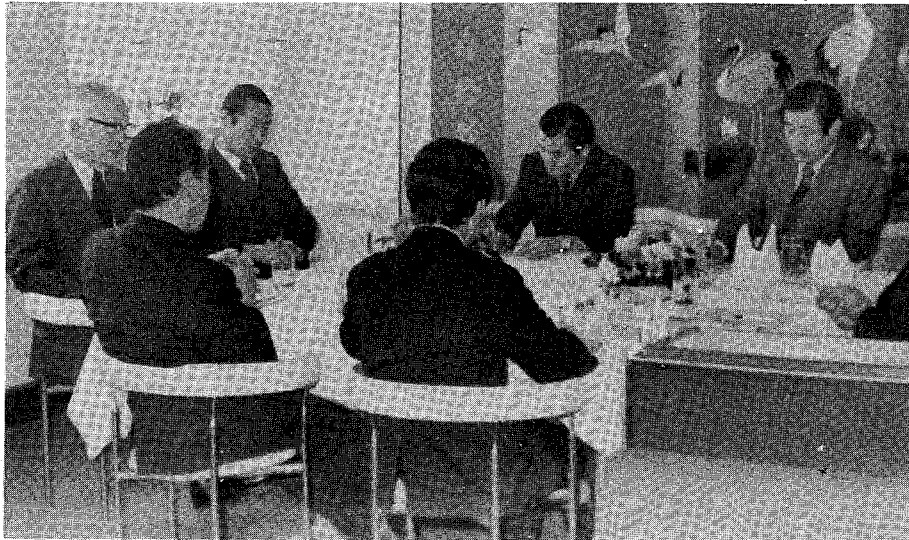
이를 展望하는 75 年 送年 座談會

日時：1975年 12月 8日(月) 12:00
場所：서린호텔 Social Room

參席：張 起 仁 (第2代 會長)
金 在 哲 (第3代 會長)
姜 明 求 (第4代 會長)
姜 奉 辰 (第5代 會長)
韓 昌 鎭 (第7代 會長)
李 圭 福 (第8代 會長) (現)

司會 李 興 秀 本協理事 編纂委員長

敬稱略



座談會 全景

※ 協會 年輪 10年 너무도 많은 고난의 해를 거듭했다. 그 逆境을 이겨내어 이제 결실을 갖어올 마지막 송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進路를 마련해 본다. 아직도 많은 課題가 밀어닥치고 있는 때에 저무는 75년을 마무리 해 보려고 歷代 會長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지난 10年 間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오늘을 分析하고 來日을 展望하는 送年 座談會를 가졌다.

主題 :

第 1 主題

機能上으로 본 協會10年 (回顧、分析、評價)

第 2 主題

建築士와 建築行政 (現實과 対応策)

第 3 主題

運營者로서의 建築士 (이대로 좋은가)



이규복(현 회장)

사 회 : 공사다망하신중 이렇게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리 주어진 몇가지 주제를 놓고 전임회장 여러분을 모시고 75년 송년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규복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규 복 : 이 자리를 빛나게 참석하여 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협회는 10년사에 그 유래가 없는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회장직을 맡게 됨에 한층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임회장님들의 격의 없으신 좌담으로서 앞으로의 진로에 그 방향교시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결례가 되는 점이 발생하더라도 너그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본회가 이만큼 튼튼한 위치를 굳혀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역대회장님들의 피나는 노력의 댓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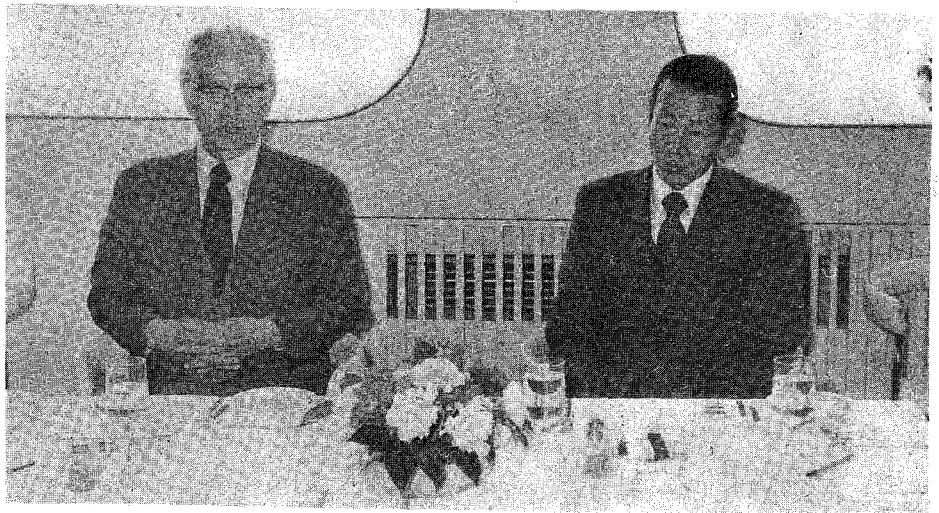
사 회 : 그러면 본 좌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주제로 기능상으로 본 협회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을 걸어온 협회를 회고하시고 이를 분석 또는 평가해 주시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인 : 현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10년간 우리 협회는 일단 정지작업은 끝났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터는 대내적인 활동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하는 일대 전환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축행정의 절차 간소화 방안만 보더라도 우리 건축사들에 거의 무한의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방향인것을 볼 때 이러한 모든 정세에 대처하는 과감한 대외활동이야말로 협회의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김재철·강봉진(3대, 5대회장) 좌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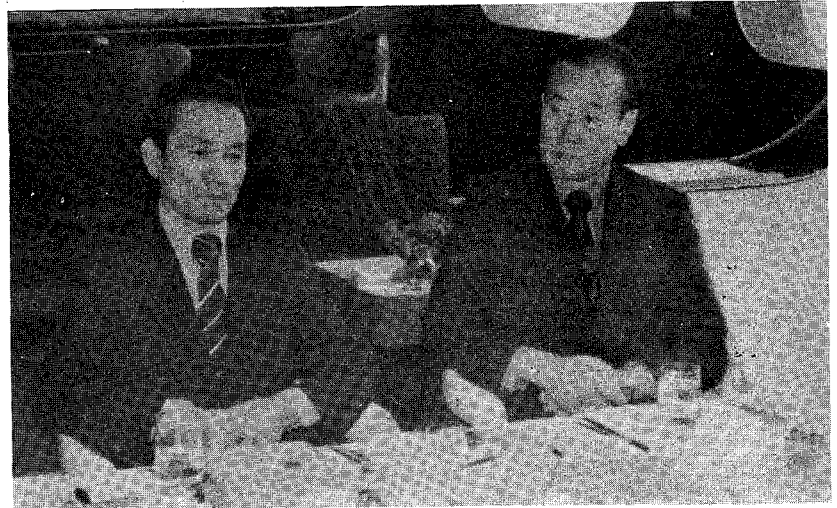
김재철 : 저도 장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제는 본협회 운영의 주안점을 대내적인 방향에서 대외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겠고 건축사에게 모든 것이 집약시켜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사의 권익옹호와 대외인식을 향상하는데 명실공히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강봉진 : 두 분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협회가 쌓아올린 10년간의 터전은 이제야말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회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매스컴의 관심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내의 모 일간신문에 전남지부장 당선기사가 났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협회는 이제 어엿한 단체로 커졌고 따라서 각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협회는 확실히 커졌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권위나 지위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젯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큰 공장의 준공식 행사를 보더라도 시공업자는 표창을 하면서도 설계자는 소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건축사는 아직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선무는 협회가 발전한 만큼 회원 개개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협회가 일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회원들은 “협회를 위해 협회를 위해”라는 스로건을 내걸고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희생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협회가 “회원을 위해 회원을 위해”라는 스로간을 내걸고 일해야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진, 강명구 (7대·4대회장)

사 회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은 강명구 전 회장님께서 한말씀 하여 주십시오.

강명구 : 컸다는 것, 자랐다는 것, 발전했다는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파연 사회 전반에 걸친 내실있는 발전 만큼 우리도 내실있는 발전이 있었는가는 건축사 개개인의 숙제로서 남아 있다고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건축사의 권익문제도 너·나 없이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하였는가도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과제인 것입니다.

한창진 :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능상으로 본 협회 10년하다보니 사회와 건축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10년간의 걸음걸이는 경험과 피나는 체험으로 뭉쳐진 결정이며 그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사가 할일은 이사회 속에 건축사의 위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므로서 그 확고한 위치를 쟁취 할 수 있는가를 고독한 속에서 꼼꼼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 우리는 누구의 힘도 빌릴것 없이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쌓은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보존해야하고 한국 건축계도 우리들의 힘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사회 속의 건축사의 위치도 구축하며 활로를 찾는것은 협회라는 창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제가 회장 재임 2년간에 쌓은 경험이고 또한 소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협회를 어떻게 발전 시키느냐에 너나 할것없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고와 노력이 부수되어야할 때라고 보면서 협회는 기능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하느냐, 각지부를 독립된 법인체로 하고 본부는 연합회로 개편하는 연합체제로 하느냐를 택일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를 하는 이흥수 편찬위원장

김재철 : 지금까지의 다각도로 말씀들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지만 개론 정도까지 진행되었고 전환기에 접어든 우리 협회의 방향제시로서 Guideline 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봉진 : 주제가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주제별로 하느니 통합해서 논의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 회 : 성질상 제 2, 제 3 주제를 한테 묶어 다루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회장께서 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지요.

이규복 : 제가 인사 말씀에서 우리 협회는 지금 전환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생각되는 것이 얼마전 건설부 장관께서 발표한 「건축행정의 간소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 주무과장이 진주, 전주, 수원 등지의 현지조사를 실시 한바도 있습니다만은 건설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 행정의 방향을 보면 건축사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큰 책임도 아울러 지우려는 것이고 명년 1월 1일부터 3개도시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견주어 볼 때 과연 우리가



장기인 (2대회장)

이를 완전무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권 태세를 확립했는가 문제가 되고 둘째로는 강봉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협회를 보는 대외의 눈이 달라졌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협회는 일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의 해외진출문제도 이제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이미 우리 건축사 앞에 당면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건축사는 사회가,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 스스로의 자질 향상과 이사회와 국가에 봉사 공헌할 수 있는 바탕을 다져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장기인 : 간소화냐(행정상) 자율화냐를 규정 짓고 넘어 가야 될 줄 압니다.

행정의 방대성에 비추워 주무관청만이 그 책임과 권한으로 통제할 불가능하다는 결론에서 건축사인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건축에 제반사를 관리 운영토록 하자는 착안에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서서히 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사가 다루어야 할 과업은 너무 방대한 것입니다. 공해문제, 산재문제, 에너지 문제 등등..... 이토록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무조건 주워진다고 다 받아 감당할 것이냐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창진 : 현재 건축행정상의 일대 변혁을 일으

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 건축사를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 건축사는 양식을 되살려 냉철한 판단으로 주워지려는 무거운 짐을 넘겨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그 많은 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니 받겠다 여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 건축사에게는 너무 거창하고 힘겨운 짐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모로보나 자유 직종인 동시에 틀에 박혀 살수 없는 창작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냉철한 판단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봉진 : 일본에서는 약 25년전에 건축사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와의 절충 및 건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제 2 차대전까지만 해도 허가제였던 건축행정이 지금은 확인제로 바뀌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시도하는 건축행정의 변화는 일본의 현행제도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의도는 건축사를 전적으로 신임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기 보다는 서정 쇄신의 일환책으로 부조리 일소를 위해 취하는 조치라는 인상이 더 짙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해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 회원 개개인의 행위가 과연 정부 시책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규복 : 제가 알기로는 이번 건설부의 조치는 건축사에게 거의 90%의 권한을 주고 관에서는 최종적인 확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대한 시행상의 행정절차도 사실상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건축사가 설계에서 준공까지를 책임 수행하고 관에서는 합동감사반으로 하여금 표본 조사를 해서 확인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의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어떻게 다 하는가가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때에 협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데 대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김재철 : 막중한 책임이 부여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찬 문제이며 불안을 배제할 수도 없는줄 압니다만은 그렇다고 필요 이상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방향 제시를 하여 유도하면 건축사의 부담은 덜어 질 줄 압니다. 기술적인면 보다는 법적인 면이 문제가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항시 제분야에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정 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장기인 : 저로서도 어느분이 말씀 하셨듯이 건축사에 대한 무한책임 부여는 배제해야겠고 역시 기술적인 것은 건축사에게 법적인 것은 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대 책임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 : 좌우간 대비책은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규복 : 자주 이러한 어려운 문제로 여러 전임 회장님들께 자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는 바쁘시더라도 전회원을 위해서 꼭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회 : 이제까지의 말씀 중에서 건축사의 책임한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 책임 한계를 분류시켜 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준공 이후에 발생한 용도변경 행위 구조상의 하자, 재해문제, 이 모두를 한데 묶어 건축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강명구 : 요율이 올랐으니 할만하다라는 안일한 타성은 이제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느 면으로 보든 당위성 있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만이 우리 건축사는 그 본연의 의무를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철저히 향상시키는 자세만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장기인 : 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내적인 규제로 책임을 분산하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건축행정에 관련된 문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사의 사무소 운영상의 향상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김재철 : 합동사무실 문제를 적극 연구 검토해서 그 육성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기인 : 개인 단위의 사무실 운영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무조건 합동은 저로서는 반대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종이 있는 고무 자본야별로 갖추어진 합동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규복 : 여러 선배님들께서 합동 사무실 문제에 대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진 : 자주 외국 예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인근 일본에서는 전체 개설업체중 80%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으로서의 평균 보조원을 4명 정도 거느리고 법인체로 운영하며 세금조절로도 덕을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원들의 근무자세를 보면 평균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실태여서 이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인력관리 문제인데 우리의 현실은 보조원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과제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협회를 통한 규제가 가능할 줄 압니다.

장기인 : 전직장의 승인 없이는 이동이 안되는 규정같은 제도만 있으면 그러한 보조원 인력관리문제는 해소 되리라 봅니다.

강봉진 : 그래서 제도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재철 : 제가 회장으로 재임시 보조원 카드를 제를 채택해 보았읍니다만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역시 일을 하는데는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제를 볼 때 건축과를 나온 학생이 어떤 자격시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축사시보 같은 자격을 두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여 건축사법 개정시에 이러한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사시보는 보조원으로 재직하면서 열심히 연마하고 일정 연한이 되면 실기시험만으로 건축사가 되도록 해주어야만 「후조」같은 보조원의 이동도 방지되고 건축학도의 면학의욕도 고취될 줄 압니다.

한창진 :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때에 건축계 3단체의 협조무드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 단체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고 서로 협조하고 밀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절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건축계의 보준은 타력이 아니라 우리들 전 건축인의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점에서 3단체의 협조무드 조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장기인 : 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보제도 같은 것도 그러한 방법(건축사법에 삽입) 보다는 역시 내적인 운영상의 묘이니 협회자체에서 규제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강명구 : 이러한 문제는 역시 학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를 현 학제로서는 분류키 어렵게 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축의장(design)관계는 미술대학에서 흡수하고 일반 설계 구조는 공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학제 같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학제는 관계관서에 건의 반영토록 하고 건축사법 개정에서도 삽입 함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장기인 :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공학적인 기초 없이는(design)도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각 대학(공과)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학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재철 : 인턴 아키텍트 문제는 총회에서 이미 논의 되었고 협회 스스로가 평가 검토해서 연구 뒷받침이 있는 자질 향상을 해야 되겠으며 교과 정문제는 각대학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창진 : 건축 전반에 미치는 얘기로 집약되는것 같습니다. 자주 우리 건축가적 입장에 놓여 있는 (예) 3단체분들과도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인 : 대내적 자질향상 문제는 많은 관심과 그 인식도가 고조되 있다고 보며, 방법으로는 우리 협회 모든 기구를 동원 타 단체인가협회·학회와도 단합 유대를 갖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명구 : 외국에서도 면허증 그 어느 분야 보다도 건축사가 으뜸이라는 공지는 일반적인 얘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1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자부하는 건축사의 위치를 다져야겠습니다.

김재철 : 이제 우리도 서서히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킬줄 아는 건축사로서 군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 회 :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강봉진 : 서정쇄신 정신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 주어지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자세를 확고하게 우리 건축사는 뭉쳐야겠고 이번 발표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부의 이해를 촉진시켜 시행전에 5인 공동책임제등은 시정시키는 동시 변천하는 주변정세와 정부 시책에 대응할 수 있는 회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협회로서의 기능을 더 한층 강화해야될 줄 압니다.

강명구 : 건설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건축사 개개인에게 막중한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협회라는 기구가 있기에 이를 믿고 협회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킴과 아울러 종전 건축사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관은 이를 관대히 보아줄 수 있었지만 협회가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이상 협회는 회원들의 잘못에 대해 관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이해시켜야 유종의 미를 건울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한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우 각 지역단위로 건축사들이 뭉쳐 자기 고장미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표창제까지 마련해 놓고 구역내에서 잘된 건물 또는 미관상 우수한 지역 등을 선정하는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지역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축사들이 그지역의 건축 도시미관에 관심을 갖고 내 고장은 내힘으로 잘 꾸며 나가자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재철 :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건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협회가 주동이 되어 일정 기간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건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건축사들인데 비전문가들이 건축 문제를 논의하고 행정이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나라 현실은 비논리적이고 우리들 측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건축 문제는 건축사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시간 지루하시겠으나 다만은 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거의 전국적으로 합동사무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보시는 견해와 또 이에 수반된 문젯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철 : 서울시 지부에서 저에게 합동사무소설치문제에 대해 자문을 청해왔기에 내 나름대로 말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인 면에서 저는 합동사무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설치되고 있는 합동사무소의 형태 운영 상태는 과도기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젯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만큼 협회가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 시행해야할 때 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동사무소는 원리원칙적인 합동이 아니고 물리적인 합동에 불과함으로 각분야의 두뇌를 망라 운영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장기인 : 저도 동감입니다. 특징 있는 건축사들이 모여 자기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참다운 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 합동이라는 것은 개념상 문제입니다. 합동을 단순한 기업합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은 기업합동에 앞서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의 합동이라는 개념정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창진 : 개성이 가장 강한 건축사들이 사실상 합동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합동을 하려면 우선 부분적으로는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각오가 밑바탕이 되어야할 줄 압니다.

그런 각오와 신념 없이는 합동 사무소의 성공은 어렵다고 보며 지금 설치되는 합동사무소는 하나의 시험 단계의 현상인만큼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경험이 쌓여지고 이런 경험과 자료가 밑거름이 되어 명실상부한 합동사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봉진 : 지금 설치되고 있는 합동 사무소는 경제학상으로 볼때에는 합동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따라서 합동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앞서야하고 정립된 개념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5명 이상이 합동한 합동 사무소에서 저작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그 공신력을 행정면에서 또는 법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합동사무소의 기능이 발휘될 줄 압니다.

사회 :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협회운영뿐만 아니라 한국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오늘 좌담회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